

이즈오시마 지오파크를 제대로 즐겨보자! 가이드 투어 추천



오시마 우우쿠키는 왜 유명한가?

안코산이 뭐지?

왜 여기에 신사가 있을까?



왜 산 위에 검은 사막 지대가 생겼지?

왜 울퉁불퉁한 용암 위에 식물이 자라고 있지?



과연 그렇구나!

지오가이드는 이즈오시마 지오파크에서 만날 수 있는 경치와 체험 속에 있는 '신기함'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즈오시마 지오파크 인증 지오가이드가 진행하는 지오투어 상시 접수 중!
반나절 1인 기준 ¥5,000(세금 별도)부터 / 2인부터 개회
※2023년 5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이즈오시마 지오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izuoshima-geo.org/enjoy/guidetour.html>



오카타함에 도착하면 우선 둘러보자!



오카타함 지오전시관

선객 대합소 2층에서 이즈오시마 지오파크의 기본 정보 +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오카타함 도착 시는 앞으로 둘러볼 장소 확인에 활용하시고, 돌아갈 때는 다음 번 방문 계획 수립에 활용해 주세요!
개관 / 당일 출발함 오카타함 9:00경부터 16:00경까지 (배 운항시각에 따라 변동 있음)

이즈오시마 화산 박물관 화산 컬렉션!

이즈오시마 화산은 물론 일본과 세계의 화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즈오시마 지오파크의 비밀과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영상도 상영 중입니다.



개관 / 9:00-17:00 연중무휴(년 11일간의 임시휴관일 있음)
요금 / 일반 500엔, 초~중학생 250엔



산을 오르기 전에 가보자!

미야라 산 정상 입구 지오파크전

개관 / 토·일 공휴일 9:30-15:00
외륜산 전망대 바로 옆 '전망대피휴게소' 1층 가이드 상주!

지오푸드 GEO FOOD

쿠사야 중독적인 감칠맛을 지닌 '쿠사야'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요리로 매년 넘새로 유명하지만 이즈오시마의 별미입니다. 또한 섬의 어려운 삶에 뿌리내린 것은 바로 지오푸드입니다.



우유 과거 오시마는 '홀스타인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농이 번성한 섬이었습니다. 온난한 기후를 선호하는 홀스타인 종은 바닷바람을 받아 미네랄이 풍부한 청초를 먹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시타바(명일엽 신선초)

미나리과 식물. '따도 내일이면 새 싹이 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생명력이 특징. 채소 재배가 어려웠던 이 섬의 풍토에 적합하고, 예로부터 자생하여 도민들에게 귀중한 채소였습니다.



이즈오시마 지오파크로 오시는 길

ACCESS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즐긴다면

| | | |
|---------|---------------------|-------------------------|
| 도쿄·타케시바 | 최단 1시간 45분 (고속 제트선) | 오시마 모토마치항 또는 오카타항 |
| 아타미항 | 최단 45분 | |

문의 및 예약 **동해기선**
☎ + 81-3-5472-9999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즐긴다면

| | | |
|------------|-----|-------------------|
| 초우 공항(비행장) | 25분 | 도쿄 오시마 카멜리아 공항 |
|------------|-----|-------------------|

문의 및 예약 **신중양항공**
☎ + 81-422-31-4191

섬내의 교통수단·숙박에 대하여

문의 / 오시마 관광 협회 (8:30-17:00)
전화 : + 81-4992-2-2177



이즈오시마 네비게이션
섬내 교통



볼거리 가득한 놀랄만한 화산섬!

이즈오시마 지오파크

IZUOSHIMA GEOPARK



비밀의 입구를 발견했다!

수중 용암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물고기 서식지?!



계절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꽃을 즐겨보세요!



화산섬의 숨겨진 심장을 찾아주세요!



산 정상 구역

붉은 계곡

11 아카다레

아카다레의 아름다운 붉은 협곡은 화산 퇴적물의 침식의 결과입니다. 계곡 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이즈제도를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용암 알갱이와 화산재가 있는 검은 사막

8 우라사막

강한 바람이 식물의 씨앗과 싹을 티우고 싹을 티우며 사막의 풍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 Geo Rock 가든

신기한 모양의 검은 바위가 사이좋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아는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7 균열 분화구

마그마가 대지를 가르고 붉은 파도를 일으키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꽃의 커튼!



연재



10 재생의 외길

어려운 환경에 적응한 개척 식물에서 생명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점차 초원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는 수백 년간의 이야기를 이 외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연젠가 숲이 되는 길



햇살이 비치는 터널



2 에도 시대의 파오이 용암

끈기가 적은 용암이 흘러나와, 이런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름진 용암?

1 외륜산 전망대

미하라 산의 검은 선은, 1986년 분화 때 분화구에서 쏟아져 나온 용암의 흔적입니다.



산에서 초콜렛이 나온다?

3 1986년 분화의 용암류 선단

분화구에서 쏟아져 나온 용암은 산중턱을 내려와 이곳에서 멈췄습니다.



울퉁불퉁 용암

거대한 주머니?



5 분화구 둘레길 순례

360° 오션뷰는 후지산, 이즈 반도, 이즈 제도, 보소 반도, 미우라 반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4 마그마가 달라붙은 바위

강을 흐르는 뗏목처럼, 분화구에서 용암류를 타고 운반되어 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 물이 데워져,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웅장한 구멍은 마그마의 불구!



한시간의 파노라마 산책!



6 미하라산 정상 구덩이 분화구

1986년 분화에서는 마그마가 이 구멍을 가득 채운 뒤 쏟아져 나왔습니다.



Flower

5월에는 오시마초지, 7월에는 사쿠유리가 화려한 꽃을 피워 검은색과 녹색 별판에 색을 더합니다.



주변 지역

거대한 바움쿠펜

4 지층 대(大)절단면

약 2만년간 일어난 대분화, 약 100회에 걸친 분화의 역사입니다.



바다로 솟아오른 붉은 언덕

1 적덕

불타는 듯한 붉은 용암과 푸른 바다와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화산으로 따끈따끈하게

3 모토마치 하마노유(온천) 외

1986년 분화에 의해 모토마치 지구의 지하수가 온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연의 부두?

2 장근

산비탈에 생긴 균열분출의 용암류가 하천을 따라 흘러 바다로 쏟아진 뒤 단단한 용암만 남았습니다.



스릴 만점의 해변 절벽

6 이마사키

파도로 깎인 절벽에는 격렬한 분화로 날아간 크고 작은 다양한 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신독신한 블랙 비치

5 모래 해변(사노하마)

높지대를 흘러 잘게 분해된 용암과 화산재가 모여 만들어진 검은 모래사장입니다.



방석을 깔 듯

7 토우시키훈안의 폭발 파편

격렬한 분화로 날아온 돌이 땅에 박혀 남았습니다.



후데시마(섬) 왼쪽 절벽에 보이는 회색 줄무늬는 오래된 마그마의 흔적(암맥)입니다.



후데시마 화산은적



층층이 쌓인 기묘한 탑

9 카키하라 해안

주변 땅에는 화산재의 둥근 덩어리(화산회석 안산암)가 많이 발견됩니다!

10 후데시마(섬)

오래된 화산이 파도에 깎이고 중심부에 있던 단단한 바위가 남았습니다.



11 벚꽃나무(사쿠라카부)

분화를 반복하는 섬에서 살아남은 벚꽃 거목은 예전부터 항해의 표식이었습니다.



오시마 벚꽃은 800살?



이즈오시마를 빙글빙글 한바퀴!



본 지도는 지리측량원에서 발행한 1/2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리측량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승인번호 헤이세이29(2017)정사, 제419-GISMAP39996호

Flower

이즈오시마의 꽃
온난다우(温暖多雨)로 배수가 좋은 땅을 선호하고 화산가스에도 강한 야생 동백꽃(아부츠바키)는 조몬 시대부터 섬에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섬사람들은 방풍림(防風林), 숲, 기름 등에 이용하기 위해 동백나무(츠바키)를 심고 소중히 길러 왔습니다.



야생 동백꽃(아부츠바키)

섬만의 강한 바닷바람 못지않은 식물들이 해를 거듭하여 해안선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입니다.



스카시유리(백합)



타이토고메(아생초)

4월, 화산의 황무지에서조차 씩씩하게 사는 오시마 벚꽃이 섬 비탈면을 하얗게 물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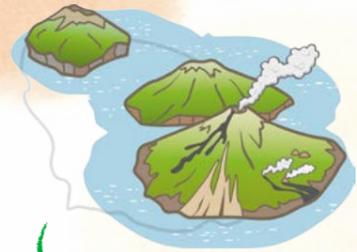


오시마 벚꽃

이즈오시마 지오파크에서 살아있는 지구를 체험해보자! VOLCANO



이즈오시마 탄생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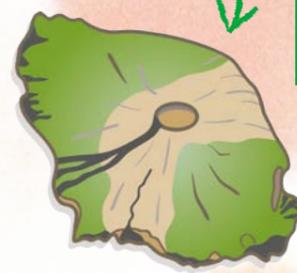
이즈오시마의 역사는 바다에
늘어난 오래된 화산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의 일...
이 근방에는 3개의 화산이
있었습니다.



세 화산은 이윽고 활동을 마치고,
파도에 깎여 점차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만 년 전, 바로 근처 해저에서
새로운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즈오시마를 만든 화산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화산은 몇 번이나
분화를 거듭해 3개의 고(古)
화산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그 후에도 분화를 계속하여,
하나의 큰 화산섬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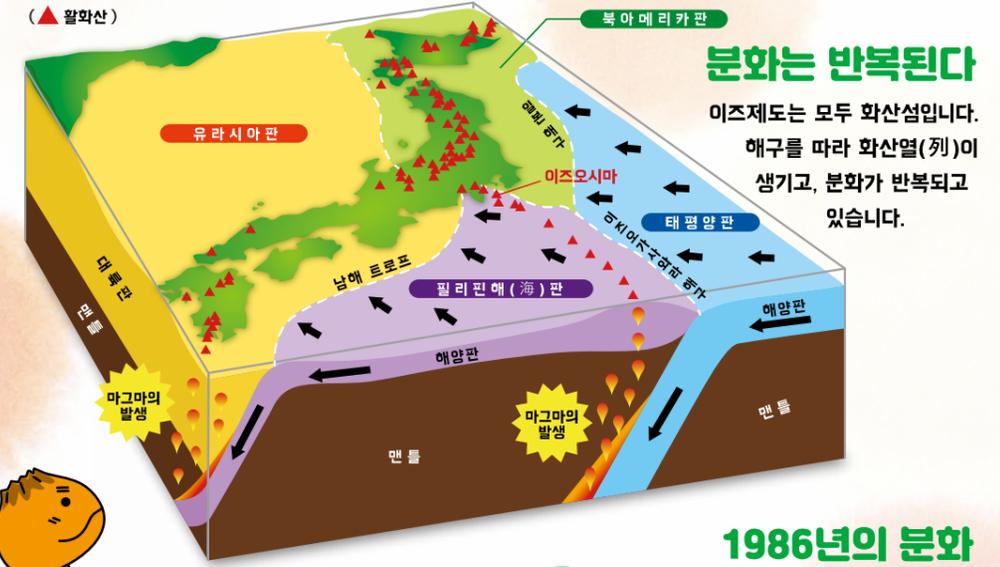
약 1700년 전 산 정상에서
대규모 수증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량의 암석과 토사가 섬을 덮듯이
흘러내려 산 정상부가 함몰되어
현재의 칼데라가 생겼습니다.



1777년부터의 대분화는 칼데라
안에 새로운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미하라 산입니다.

그 후에는 칼데라 안에서 용암류를 흘러 보내는
분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1986년에 일어난 칼데라
밖에서의 분화는 약 56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분화는 반복된다

이즈제도도 모두 화산섬입니다.
해구를 따라 화산열(列)이
생기고, 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6년의 분화



1986년
11월 15일

산 정상에서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19일

용암이 칼데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6년
11월 21일

칼데라 북부, 이어 북서쪽 산 중턱에서 균열
분화가 일어나 용암이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와,
민가까지 약 200m에 육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 도민이 1개월간 섬 밖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고진카’와 함께하는 섬의 생활

화산은 때때로 재해를 초래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화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 섬 주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이즈오시마에서는 예로부터 솟아오르는 마그마와 붉게 물든 하늘을 ‘고진카’라고
부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화산 감시반 화산 관측 장비

이즈오시마에서는 국가와 대학 등이 지진계, 경사계, CCTV
등의 화산 관측 기기를 100대 이상 설치하고 기상청이 산의
모습을 24시간 체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방재 행정 우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즈오시마 화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현상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즈오시마 화산활동 상황(기상청)



지오파크에서 '지구(지오)와 사람의 유대'를 즐겨보자!

대지의 성분과 구성 요소, 특징을 알고, 그 지역이기에 탄생한 경치나 생물,
사람들의 생업의 역사를 읽고, 「지구(지오)와 사람의 유대」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오파크입니다. 우리는 이 섬에서 여러분과 눈앞의 풍경
속에 있는 감춰진 지구(지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며 느끼고 싶습니다!

